

지역 매 아리

완주군, 쌀·밭·조건불리

직불금 신청...4월 30일까지

완주군이 쌀·밭·조건불리 직불금 신청을 받는다.

14일 완주군은 오는 4월 30일까지(논이 모작은 3월 8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행정복지센터와 주산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2019년 쌀·밭·조건불리 직불금 신청을 접수받겠다고 밝혔다.

신청 대상자는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업인(농업법인 포함)으로 실제 대상농지에서 경작하는 농업인이어야 한다. 단, 농업 외 종합소득이 3700만원 이상이거나 휴경을 제외한 논·밭 각 농지면적이 1000㎡ 미만인 농가, 자기의 소유가 아닌 농지를 무단으로 점유하는 자는 직불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수의 읍면에 걸쳐 농지를 경작하는 농가는 농지면적이 가장 넓은 농지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일괄신청하면 된다. 직불금의 단가는 쌀고정직불금은 진흥지역 농지의 경우 ha당 107만6416원, 진흥지역 밖 농지는 ha당 80만7312원이다. 밭농업직불금 중 밭고정직불금 진흥지역 농지는 ha당 70만 2988원, 진흥지역 밖 농지는 ha당 52만7204원으로 평균단가가 전년 대비 5만원 정도 상승했다.

논이모작직불금은 진흥지역 구분 없이 ha당 50만원이다.

직불금은 신청자 및 신청필지에 대한 이행점검이 모두 완료된 후 확정된 면적에 따라 10월에 지급할 예정이다.

/완주=이종복 기자

김제시농기센터, 맥류 생육재생기

이달 하순까지 웃거름 시비 당부

김제시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병철)에서는 올해 기상분석 결과 2월 상순 일평균기온이 0.9℃로 전년보다 4.3℃ 높았으며, 1~2월 강수량이 88mm로 풍부하여 맥류 생육재생기를 평년보다 5일 빠른 2월 15일로 판단하고 이번 달 하순까지 웃거름 시비를 해야 한다고 당부하였다.

웃거름 사용은 생육재생기 후 10일 이내 요소를 10a당 10kg 정도로 뿌려주어야 하는데, 생육이 좋은 포장만 1회, 생육이 부진한 포장은 2회에 걸쳐 나누어 주는 것이 좋으며, 사료용 청보리는 일 반보리에 비해 30%정도 더 주어야 한다.

습해나 동해를 입어 황화현상이 심한 포장은 요소 2%액을 10a당 100리터씩 2~3회 엽면시비하여 생육을 촉진시켜 줘야 한다고 했다. 또한 잡초종류에 따라 알맞은 제초제를 선택하여 잡초 생육초기(3~4엽)에 처리해야 약해 피해 없이 잡초 발생을 효과적으로 방제할 수 있다.

/김제=곽노태 기자

아동·청소년 행복정책 본격

완주군, 아동친화도시 시행계획 186개 사업 심의

유네프(UNICEF) 아동친화도시 완주군이 아동·청소년 행복정책에 본격 나섰다.

14일 완주군은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 회의를 열고 2019년 아동친화도시 시행계획을 심의했다.

이 자리에서 완주군은 2019년 아동·청소년행복정책 추진사업으로 돌봄, 역량, 건강, 안전, 보호, 실행기반 6개 영역 186개 사업(약 72억)을 심의했다. 군 자체사업으로는 92개(329억)사업을 추진한다. 전국 군 단위 중 단연 최고수준이다.

특히 신규사업으로 출산축하용품지원을 비롯해 다함께 돌봄 플랫폼 구축, 지역재생활 농촌유학센터 건립, 자연숲 놀이터 조성사업, 아동·청소년 사회환경 조사 등 13개 사업이 추진될 예정이어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완주군은 아동·청소년 행복정책을 위해 출산부터 가족까지 발달주기별 아동지원체계를 확립하고, 아동참여정례화, 찾아가는 서비스를 통한 지역



14일 완주군은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 회의를 진행했다.

격차 해소, 유관기관 네트워크 강화 및 모니터링 수행 등을 통해 2019년 아동·청소년정책의 도약기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민·관·학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아동친화도시 추진 실무협의회 추진과 아동·학부모·관계자 등 교육 및 역량강화를 위해 아동권리교육사업도 확대된다.

더불어 아동육구기반 다양성 확보를

위해 아동친화도 조사 및 정책워크숍을 진행해 지역별 격차해소 및 균형발전을 위한 중장기 행복정책 계획을 마련한다.

박성일 완주군수는 "아동이 행복한 도시는 우리 모두가 행복한 도시"라며 "우리 아이들이 자신의 권리를 실현하고 그 가치를 모든 구성원이 참여할 때까지 계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완주=이종복 기자

음식물쓰레기 퇴비화로 시민 편의 제공

김제시, 지속적인 개선과 유지보수로 쾌적한 환경조성 기여

김제시 북죽동에 위치한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은 음식물류폐기물을 퇴비화하여 친환경적으로 처리함에 따라 환경보호, 민원 발생 억제 등 시민을 위해 운영되고 있다.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이 설치되기 이전에는 음식물류폐기물을 매립, 소각 등 비위생적으로 처리하였고, 이러한 방식은 시민들의 불편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환경오염을 일으키는 주원인이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김제시는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을 '03년 02월 설치하였고, 노후화된 시설을 지속적인 개선과 유지보수로 원활하게 운영하여 환경오염 방지 및 쾌적한 환경조성에 기여하고 있다.

특히 음식물류폐기물을 재활용하여 만든 부산물비료(퇴비)는 농가에 무상제공되어 영농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 농가들은 "고품질의 퇴비를 김제시에서 무상제공받아 매년 많은 도

움이 되고 있다"라고 밝혔다.

현재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에서는 매일 약 30톤의 음식물류폐기물을 퇴비화 하고 있으며 2018년도에 음식물류폐기물 8,800여 톤을 처리했고, 230여 농가에 950여 톤의 퇴비를 공급하였다. 김제시 관계자는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은 16년 이상 노후화가 진행되어, 지속적인 개선과 유지보수로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에 만전을 기하여 김제시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제=곽노태 기자

김제지평선아카데미, 서울대 의대 박재갑 명예교수 초청 강연

제589회 김제지평선아카데미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박재갑 명예교수를 초청하여 14일 오후 3시 김제시청 지하대강당에서 '집중팔구 암에게 이긴다'라는 주제로 강연을 펼쳤다.

이날 강연에서는 국내최고 암전문가인 풍부한 임상경험을 바탕으로 현실적인 암예방과 금연 등 생활 속 실천방안으로 행복한 삶의 필수요소인 '건강'을 지키는 방법을 배우는 강연

으로 진행하였다. 박재갑 교수는 서울대학교 대학원에서 의과학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국립암센터 1,2대 원장 및 대한암학회 이사장 등을 역임하였다.

현재는 한국세포주은행 대표, 국립암센터 국제암대학원대학교 명예교수,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명예교수로 활동하고 있다. 저서로는 '대장항문학', '암, 극복할

수 있다', '집중팔구 암에게 이긴다'의 다수가 있으며, 제3회 HDI인간경영대상 및 2016 동문상 공로부문 등 다수의 수상경력이 있다.

더불어 이 날은 만경읍 주민들이 함께 참여하는 '지평선아카데미 체험의 날'로 만경을 소개와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인 만경을 스포츠댄스 동아리의 댄스공연과 추억의 통기타 동아리의 기타연주공연은 시민들과 함께 호흡하며 강연분위기를 한층 돋우었다.

/김제=곽노태 기자

지평선 광활햇감자축제 개최

4월 20일 광활면 광활초등학교 일원서

제12회 지평선광활햇감자축제(New Potato Festival)가 오는 4월 20일 김제시 광활면 광활초등학교 일원에서 개최된다.

지평선광활햇감자축제는 전국 최고의 시설하우스 감자 주산단지인 광활에서 간척지와 해풍 등 천혜조건에서 생산한 햇감자의 우수성을 알리는 축제이다.

해마다 4월에 개최되어 올해 12회를 맞이하는 지평선광활햇감자축제는 지역민과 출향인이 함께 어우러지는 화합마당과 관광객들과의 상호교류를 통한 지역활성화, 생산자와 소비자를 직접 연결하는 우리농산물 홍보 및 소득 증대의 장으로 펼쳐진다.이번 축제에서는 햇감자를 이용해 다양

한 요리를 선보이는 시식코너와 시종가보다 저렴하게 판매하는 감자지저래 장터를 운영하는 등 광활햇감자의 맛과 우수성을 전국에 알리고 관광객의 입맛을 사로잡을 계획이다.

특히 광활햇감자는 풍부한 미네랄을 함유한 간척지 토양에서 자라 육질이 단단하고 당도가 높아 전국 봄감자중 최고로 평가받고 있으며, 매년 전국 봄감자 생산량의 30%이상을 생산하고 있다.

신광식 축제추진위원장은 "이번 지평선광활햇감자축제가 지역주민들이 자긍심을 느낄수 있는 멋진 축제로 성장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완주군은 재단법인 완주커뮤니티비즈니스 지원센터와 위탁 협약을 맺고, 3년간 도시재생 지원센터 운영한다.

완주군, 도시재생지원센터 본격 가동

완주군이 원도심을 중심으로 도시의 자생적 성장기반 확충을 위한 '완주군 도시재생 지원센터'를 운영, 도시재생 지원체계를 본격적으로 가동한다.

14일 완주군에 따르면 그동안 완주군은 지난 2017년도에 선정된 봉동읍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위한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해왔다.

올해는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지난 1월 도시재생사업이 진행 중인 지역의 컨트론타워 역할을 할 도시재생 지원센터를 민간위탁 방식으로 공모했다.

그 결과 도시재생에 많은 경험과 노하우를 가지고 활동하고 있는 재단법인 완주커뮤니티비즈니스 지원센터와 위탁 협약을 맺고, 3년간 도시재생 지원센터 운영 및 관리를 하게 됐다.

센터는 도시재생대학을 통해 도시재생사업이 주민들의 이해를 기반으로

진행 될 수 있도록 지역주민의 자치역량을 강화하고 도시재생 전문인력 육성을 위한 리더 교육 등 다양한 교육프로그램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도시재생기업을 발굴 및 육성을 하고 사업컨설팅 등도 지원하며 주민의견을 반영한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수립해 올 하반기 도시재생 공모사업에도 도움을 주는 역할을 맡는다.

최충식 도시개발과장은 "도시재생 지원센터의 적극적인 활동을 기대하며 주민들이 한자리에 모여 도시재생 사업을 이해하고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향후 완주군 도시재생지원센터와 담당부서가 협업해 쇠퇴지역에 대한 도시재생 사업 발굴과 지속적인 국가공모사업 참여를 하는 등 본연의 목적에 맞게 사업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완주=이종복 기자

본인이 **똥똥** 하다고 생각하시면
몇 kg 정도 를 빼고 싶으세요?

뱃살, 내장지방, 체지방을 요요현상 없이
 귀하가 원하는 만큼 쏙 빼수 있습니다

상담전화: 010-3655-9009
 블로그: <http://kangsb1959.blog.me>
 메일: ndtherapy119@gmail.com

효소다이어트, 해독 프로그램 전문